

일상 공간행위와 재현을 통한 도시경관의 문화정치:*

파리 20구 벨빌 지역 이주민 커뮤니티의 사례

송도영**

1. 문제의식: 도시 경관을 통한 문화 영토화와 정체성

도시경관의 권력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주킨(Zukin 1991; 1995)은 뉴욕 맨해튼의 재개발과 예술가 구역의 의미 재생산을 언급하면서, 물리적 건물들의 외양과 거기서 움직이는 인구의 실천행위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은 도시의 경제변화와 문화적 권력변화를 그대로 투영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세넷(Sennett 1996)은 아테네와 로마, 중국 장안성과 같은 고대도시의 경우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도시공간과 건물 등 각종 물리적 구조물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현대도시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이 더 이상 뚜렷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것은 현대 도시공간의 특성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관과 구조물 내부에 숨은 요소들 사이에 상이한 차원이 적용되는 이중적 공간 논리를 갖기 때문

* 이 논문은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4-041-B00390)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라고 설명된다.¹⁾ 이 같은 이중적 차원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공간 외양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기존 주도세력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력이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확산시킬 수 있다. 그 경우 새로운 세력의 공간 점령행동은 물리적 공간의 구조적 측면 외에도 공간을 일상적으로 활용, 해석하며 공간사용 행동과 이미지의 새로운 재현들을 통해 일상 경관을 ‘덧칠하는’ 전략을 따라 진행될 수 있다.

한편, 모리스(Morris 1988)는 현대 도시공간의 또 다른 속성으로 ‘특성을 잃어낼 수 없는 공간’ 또는 밋밋하고 특징이 없는 물리적 외양을 거론한다. 거기서 현대 도시의 물리적 구조물을 건설하는 주체들의 전략은 권력의 이미지에 걸맞거나 특정 인구집단의 용도 및 취향에 들어맞는 가독성(可讀性)을 일부러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빠르게 전개되는 시대의 조건에 따라 공간의 외양을 공간행동과 이미지적 재현으로 덧칠할 수 있는 여지를 늘린다. 즉 공간 외양에 주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각인시키기보다는 공간적 외양의 의도적인 ‘중립화’, ‘중성화’, ‘무성격화’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최대의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며 스스로 변환, 적응하려는 자본의 전략(King 1990: 29, Abu-Lughod 1991: 23) 중 일환으로 해석된다.

세넷과 모리스의 설명은 사실상 주킨의 뉴욕 사례연구에서도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맨해튼 중심부 주거구역이 비교적 값쌌던 시절에 예술가들의 창고형 아틀리에가 들어섰던 것이, 이후 재개발을 통해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고 예술가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자 예술가들은 동맹을 결성하고 다른 사회적 세력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재개발을 반대하는 한편, 도시공간에 대한 그들 차원의 의미부여와 재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 부르디외도 카빌리의 주거공간 형태 사례에서(Bourdieu 1977)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구조적 측면이 그대로 물리적 공간에 배어있음을 강조하지만, 오늘날의 도시화된 공간은 문화와 공간의 관계는 그러한 일치성이 쉽게 성립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된 건물과 골목길의 작은 가게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창고형 창작 활동 공간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일상 경관에 ‘전통성’, ‘역사성’, ‘예술성’, ‘문화성’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했다(Zukin 1995: 148). 또 일반인들에게 그 같은 내용을 확산시켜 그에 따른 가치를 제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결국 이 일대는 재개발이 중단되고 문화적 자산이 되는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가치를 재평가 받게 되었다. 이것은 공간 행위자들이 후기 자본주의 공간의 정치경제적 흐름 속에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의미를 재창출하고 공간의 의미를 전복, 재점령(De Certeau 1990: 14)한 사례로 이해된다. 물론 그것이 후기 자본주의의 경제 사이클이 갖는 속성들과 교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며 (King 1990: 48), 문화자본의 사회적 가치가 고양되는 시대적 맥락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이러한 공간행동의 정치적 양상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적용될 수 있다. 1850년대부터 1870년대 초까지 오스만(Haussmann) 시장 주도하의 대대적인 도시개조 작업을 통해 조성된 파리 중심부는 그 공간구조와 건물 외양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은 채 21세기에 들어섰다(Beaumont-Mailletm 1985; Lidgi 2001: 13). 파리는 특히 1962년의 앙드레 말로 법에 의해 도시구역 대부분이 문화유산 특별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Lojkine 1995: 141) 공간구조와 건물의 외양을 쉽게 개조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정책기조는 19세기 후반에 성립된 도시경관 골격이 21세기 초인 지금까지도 지속되게 함으로써 도시 중심부의 문화, 역사, 관광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도시의 정체성을 중요한 자본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도 아래 지속되어 왔다(Lidgi 2001: 16). 역사상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던 20세기 내내 역사는 진행되었으되, 도시 중심부의 경관, 특히 건물과 거리들의 공간적 외양은 강력한 국가정책에 의해 대부분 ‘정지’되었던 셈이다. 그에 따라 파리는 도시경관의 현대사에서 특수한 사례를 제공한다.

이처럼 공간외형이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리의 도시적 일상생활 양식은 다른 현대도시의 그것에 비해 느린 속도로 변화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물리적 공간의 형태가 반드시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결정짓는 것만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의 생활양식 변화는 기존의 공간을 재해석하게 만들었다(De Certeau 1990: 46). 우선 법적 강제성에 따라 외형은 가급적 유지하면서도 구조물의 내부는 적극적으로 개조하는 이중적인 차원이 전개되었다. 또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일상적 공간 행위를 다양한 차원으로 구사하고 공간의 이미지를 안팎으로 재조정, 변형시킴으로써 기존 공간을 자기 것으로 변환시키기, 즉 자신의 문화적 영토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각종 전략들을 발전시켰을 것이라는 가설(Augé 1994: 32)이 가능하다.

이같은 가설에 입각해 본 연구는 2007년 현재 파리의 행정구역을 구성하는 20개의 구 지역 중 20번째 구(arrondissement), 그 중에서도 대다수 파리지앵들에 의해 그 공간기억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강조되는 벨빌(Belleville) 구역에서 전개되는 공간행위를 통한 문화적 재해석과 경관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파리 20구의 벨빌 구역 일대는 19세기 중반 이후 프랑스의 산업화와 도시 확장 시기에 파리의 한 구역으로 편입된 이래 최근까지 줄곧 파리의 전형적인 서민적 구역, 혹은 도시 산업노동자들의 구역으로 인식되어온(Jacquemet 1995; Fayt 2003) 곳이다. 그러면서 그 인구 구성에 있어서는 20세기 초반부터 꾸준히 전개된 외국출신 이민자들의 유입 정착지로 발전하면서 파리 시의 어느 곳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곳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파리 20구의 공간을 중심으로 현대 도시 공간적 양상이 현대 이전의 ‘공간-문화’ 간의 밀착관계(Bourdieu 1977: 74)와 대조되는 국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벨빌 구역에 대한 기억과 재현 작업들이 사진, 에세이, 소설, 영화, 여행자 가이드 책등을 통해 프랑스적 도시문화의 전형성을 강조하

려는 국면을 다룬다.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관해석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벨빌 지역의 도시 재개발의 압력을 둘러싼 경관해석과 의미의 동원전략들이 살펴질 것이다.

2. 대상의 성격과 범주: 파리 20구 벨빌(Belleville) 구역

파리의 20구 중 벨빌 구역(Quartier de Belleville)은 파리의 중심부로부터 동북부에 위치하며 파리 북부외곽지대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뷔트 쇼몽(Butte Chaumont) 언덕 근처에 자리 잡고 있고, 지형적으로는 서편의 언덕형태 고지대로부터 동쪽으로 서서히 낮아지는 경사지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1860년에 파리로 편입된 후 1870년대 초에는 파리 꼬뮌(Paris commune)의 주요 전투 지역이었다. 1881년 이래 다시 공화정이 복귀하면서 파리 꼬뮌의 유산과 사회주의의 영향이 전통적으로 강한 곳으로서 수많은 정치적 집회와 시위, 연설, 전투의 기억들이 배어있다.²⁾

이후 이곳은 파리의 노동자 계급과 중소상인, 도시 서민대중의 공동체 문화가 발전했던 곳으로 기억된다. 20세기 파리의 도시적 일상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빵집, 구두수선공, 카페, 산책로, 아이들의 놀이터와 골목길, 4~5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 아래층의 야채가게와 중소 상업시설, 기타 공간들이 자리 잡으면서 프랑스적인 ‘도시 동네’ 혹은 도시 골목 공동체의 전형적인 공간들을 구성(Fayt 2003)해 왔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화되는 1950년대 이후 이곳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재개발 시도가 있다가 무산되었다(Lojkin 1995: 118; Bonnefoy 2000: 39). 1962년의 앙드레 말로 법안에도 불구하고 건물 노후화와

2) 벨빌 구역의 역사, 특히 정치적 사건들이 각 공간에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를 다루는 글들은 다양한 형태로 출간되었다. 특히 에세이집과 사진집류가 적지 않은데, 그것들 외에 비교적 전문적인 학술작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Jacquement(1995)와 El-Gammal(1998)의 책들이 있다.

도심 산업의 변화로 기존 시설들이 철거되거나 정비될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에 반해 주민들 중 다수는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기존 중소 상인들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려는 동기와 기타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재개발에 반대해 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재개발 후 급상승할 주거비용 때문에 도시 노동자 및 서민계층이 주를 이루는 이곳 주민들이 재개발에 반대해 온 것인데, 이것은 외적으로는 전통 도시구역 생활의 문화적 정체성의 강조, 그리고 도시공간을 점유하려는 현대 산업자본에 대한 거부를 명목으로 삼았다.

1960년대 초 알제리의 독립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노동자들의 가족을 주축으로 하는 무슬림 인구는 주로 대도시 지역으로 유입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노동자와 서민계층이 거주해온 파리 20구 지역에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와 생활환경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노동자들의 직장이 기존 파리 노동자 계급의 직장과 일치하거나 그 주변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출발한 것에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점차 늘어나는 북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인구는 파리 20구의 벨빌 구역에서 기존 프랑스계 도시 거주민들을 능가하는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벨빌 구역의 주요 구성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Grimaldos 1998: 21).

이 같은 추세는 도시 일상경관에도 변화를 가져와, 제3세계 출신 이주민들의 주요 일상 무대인 벨빌 구역의 ‘분위기’를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나갔다. 동네 곳곳에 이슬람 음식점과 아프리카, 중국계 식료품점이 색다른 향신료 냄새를 풍기고 골목 어귀에서 울려나오는 음악들도 알제리 계통의 아랍음악과 중국, 베트남의 것들이 자주 들리게 되었다. 거리를 메우는 사람들의 복장에서도 동그런 챙 있는 모자에 바게뜨 빵을 옆구리에 낀 서민적 파리지앵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젤라바라는 북아프리카식 외투에 하즈 모자나 화려한 색깔의 검은 아프리카 걸옷, 그리고 여성의 경우 이슬람식 머리 두건을 두른 모습이 벨빌의 거리에

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구성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리지역들 사이에 자신들의 기억과 향수가 배어 있던 벨빌 구역에 대한 노스텔지가 강해질수록 벨빌 구역의 아랍화와 이슬람화, 나아가 아프리카 및 중동출신 사람들의 공동체가 가시적으로 확산되는 데 대한 반작용들이 발전한다. 물론 벨빌의 기존 ‘프랑스계’ 주민들 중 일부는 새로운 지역 분위기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소극적인 형태지만 1980년대 이전의 벨빌 지역의 ‘프랑스 도시적 전형성’을 나타내는 도시경관에 대한 기억의 재현을 강화하려는 시도들도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파리 20구의 벨빌 구역은 19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전개되어 오고 있는 일상적 도시경관참여 공간행동과 재현,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의미부여 행위들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곳 중 하나이며, 이 행위들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의미와 정체성의 영토 경쟁’의 형태는 새로운 관심을 기울일 만한 현상이다.

한편 연구대상 범주의 지역적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문제가 없지는 않다. 1860년까지 벨빌이란 이름으로 지칭되는 구역은 *commune*이라는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여져 있었다. 그러나 1860년에 이곳이 파리 시로 편입되면서 당시 파리 시장이었던 오스만 백작은 이전까지 벨빌의 중심지였던 시청 앞 광장을 지나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벨빌을 둘로 갈라놓았다. 그것이 오늘의 파리 19구와 20구를 나누는 경계선이 되었다(Chadych 1999: 74).

이후 19구 구역의 일부도 벨빌로 인식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벨빌의 주된 영역은 20구 부분으로 인식된다. 그것은 벨빌 구역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20세기 중반 들어 20구에 위치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일상경관에 의해 표상되는 경향이 강화되어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벨빌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이런 구역의 범주와 정체성에 대해 각기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즉 자기들 나름대로의

영토의식이 작용한다. 그것들을 구분하는 선은 역시 벨빌 구역 일대에 나있는 주요 도로들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이 연구대상 지역의 범주를 조작적 규정 차원에서 좀더 분명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벨빌 구역은 2007년 현재 파리의 20구에 속하는 지역 중에서도 벨빌 대로(Boulevard de Belleville)와 아베뉴 감베타(Avenue Gambetta), 그리고 벨빌 거리(rue de Belleville)로 둘러싸인 삼각형 모양 지대를 직접적인 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대상 지역은 약 1.2평방킬로미터의 넓이로써, 지역의 중심부에는 벨빌 공원(Parc de Belleville)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일대와 주변에는 지하철 벨빌 역을 비롯해 12개의 지하철역이 인근에 흩어져 있다.

이 연구는 2003년부터 파리시의 공간적 역사와 정책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준비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벨빌 구역에 대한 문헌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5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의 벨빌 구역 현지체류를 통해 지역경관 재현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구술 사적 증언에 관련된 현장조사가 한 차례 이루어졌고,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의 두 번째 현장조사를 통해 재개발 압력과 그에 맞서는 지역조합의 움직임에 대한 활동가들의 증언과 주민들의 입장에 대한 조사가 보충되었다.³⁾

다음 장에서는 벨빌 구역의 도시 경관과 그에 대한 재현들이 여러 세력들 간의 영향력 싸움과 주민의식 형성, 그리고 정체성 대립과 분열의 각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기억의 증거자료들이 어떻게 축적되고 또 재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3) 현장조사 기간동안 파리 20구에서의 체류를 가능하게 하고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도와주신 분들, 특히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EHESS) 관계자들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동료 Soraya El-Alaoui, 바쁜 시간을 쪼개 재개발 대응 조합운동의 과정을 설명하고 사람들을 연결해준 La Bellevilleuse의 관계자 여러분과 Ça se visite의 유쾌한 가이드 Angénique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이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3. 경관 재현의 다양한 차원들

1) 동일한 지역 공간, 다른 의미 해석

벨빌이란 동네는 제일 프랑스다운 서민 주거지다. 말하자면 진짜 파리 중의 파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정서나 분위기가 그렇다. ... 파리 보통사람들의 생활을 그린 소설가, 시인, 가수, 영화작가, 화가들의 작품 속에서 벨빌은 어느 구석에서건 꼭 한 번 등장하는 동네다. (Nicole Paquet의 증언. 1939년 벨빌 구역 출생)

‘ 시내’에 사는 ‘파리지앵’들은 벨빌이란 동네를 그렇게 좋지 않게 봤다. 지금도 그렇지만 1940년대 벨빌이란 동네의 인상은 불량배들이 버글거리는 우범구역이었다. (Morier의 증언)

벨빌은 파리 시내에서 프랑스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밀집해 있는 동네다. ... 프랑스 말을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거리 풍경, 보이는 사람들, 들리는 말소리와 음악, 풍기는 음식과 향료 냄새, 어느 것 하나 “프랑스적인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동네가 되었다. (Perec 2000: 11)

동일한 지역을 두고 이루어지는 상이한 인식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전략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런 점에 있어서 파리의 벨빌 구역은 그곳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과 경관에 대한 해석, 다양한 재현방식들과 더불어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온다.

벨빌은 과연 어떤 동네인가? 그리고 어느 것이 “진정한 벨빌”의 모습인가? 벨빌의 공간들을 소재로 만들어져온 수많은 영화와 소설, 노래와 사진, 그림들은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벨빌의 모습을 표상화하고 있는가?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인가? 혹은, 그런 공간 의미와 이미지의 재현들은 파리 주민들의 도시적 정체성과 그들의 일상성에 대해 스스로 부여하는 이미지 형성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가?

파리의 일상적 생활에 대한 기억의 역사에 있어서 벨빌이라고 하는 구역은 항상 여러 가지 상반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시외 지역이었다가 파리 시내에 편입되던 해인 1860년 이전까지 벨빌은 수도에 바로 인접한 교외 마을로서 왕가와 귀족의 교외 별장 지대이기도 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로 급증하는 도시 내 인구의 주거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육체노동 인구의 값싼 주거지역으로 발전했다. 거기서 도시 외부의 ‘목가적인 교외풍경’과 함께 그와는 상반되는 육체노동자들의 ‘불량 밀집 주거지’의 경관이 공존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Musée Carnavalet 1977: 21).

19세기 파리 꿈원의 정부에 대한 저항과 대학살 사건, 그리고 20세기 초반 내내 파리의 주요 도시공업지역이자 노동자 주거지역이었던 벨빌은 파리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본거지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Meusy 2001: 37). 한편, 20세기 후반의 파리 시민 중 다수가 지방출신이거나 19세기까지는 지방 주민이었던 이들의 후예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벨빌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많은 현재 파리 시민들의 어린 시절을 반영하는 보다 대표성 있는 도시일상의 기억공간이 돼버린다. 거기에서 귀족이나 상류층과 대비되는 ‘서민’들의 ‘정겹고 푸근한 도시 공동체’와 같은 분위기의 일상생활 공간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근거지로서 벨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⁴⁾

이런 이미지는 상류층과는 다른 노동자 혹은 ‘서민층’의 일상에 뿌리를 가진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덜 풍요로웠던, 그러면서도 더 정겨웠다고 상상하는 과거의 추억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노동자 계급의 범주를 넘어서 현대 파리시민의 추억을 구성하는 대표적 이미지를 제시하게 된다.

4) 이 같은 낭만적 일상경관을 발전시키는 데는 여러 형식의 재현들이 기여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레피디스의 에세이집들(Lépidis 1975, 1980, 1997)이 담론을 정리하고 수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다.

2) 구역의 일상 경관 재현: 형식과 경향

벨빌에 대한 이미지의 형성은 프랑스 혁명의 후기 파리 꿈된 시절에서부터 이 동네에 강한 색깔과 성격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도시 재개발이 본격화되는 1950년대 무렵, 그리고 다시 한번 재개발의 압력이 강하게 대두되는 1980년대부터는 벨빌의 이미지가 훨씬 다양한 형식과 경향으로 전개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 나타났던 벨빌에 대한 문학작품, 그림, 사진, 만화, 영화, 신문 방송 등의 기사, 다큐멘터리 등 각 장르의 재현물들⁵⁾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해본 결과, 특히 이 동네의 경관을 재현하는 형식들과 거기에 부여되는 의미의 경향들이 나타났다.

모든 경관에서 ‘중립성’이란 존재하기 어렵듯이 위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재현되는 벨빌 구역의 경관들도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의 경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것은 각 시대의 현안에 따라, 그리고 재현물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사람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 경향성에 따라 변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시기에 나타나는 재현물들 간에 해석 경향이 격돌하고 갈등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 언론기사와 문학작품들의 문헌, 그리고 다시 그것을 소재로 한 현장 인터뷰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재현물들에 대한 해석의 경향들을 분류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여기서 재현에 사용되는 매체의 형식은 어느 특별한 경향과 따로 친화성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전원지대로서의 벨빌
 - 도시외곽지대의 목가적인 분위기

5) 벨빌지역의 경관을 직접적인 소재로 한 작품들 중 비교적 최근의 것을 몇 개만 들면 Sam(2004)의 애니메이션과 Guerard(2000)의 사진집, Perec(1994)과 Lépidis(1997)의 에세이 등이 있다.

- 파리 외곽 귀족들의 별장이 갖는 안락함과 편안함
- 중간층 유흥지로서의 벨빌
 - 카바레의 유흥문화와 낭만
 - 술 취한 모습과 댄스파티 장면을 통한 휴식과 방종
 - 예술가들의 활동무대
- 좌파운동 본거지로서의 벨빌
 - 프랑스 혁명 이래 급진적 노동자 운동의 본거지
 - 공장 저임금 노동자들의 과격함과 열정
 - 노동자 가족의 일상이 보여주는 빈곤상태
 - 생활협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의 유대
- 과거의 도시적 일상에 대한 향수 제공 공간으로서의 벨빌
 - 따뜻한 정이 나누어지는 도시 공동체
 - 까페와 시장, 골목이 어우러지는 프랑스 도시 주거문화의 전형성
 - 어린시절의 추억
 - 차가운 도시문화 이미지와 대조되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함
- 다국적화된 구역 전형으로서의 벨빌
 - 외국출신 다른 인종의 문화가 보여주는 낯설음과 생소함
 - 이주 노동자들의 생활이 보여주는 또 다른 빈곤
 - 불량가옥, 재개발 지대의 황폐와 불안
 - 범죄와 일탈 환경의 분위기
 - 다양한 국제 문화들로 인해 컬러풀해진 경관의 풍부함

벨빌이라는 동일한 구역에 대해 이처럼 다양하게 이뤄지는 경관 이미지의 재현과 의미부여 방식은 그것들이 각기 경향을 지니면서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섞여서 새로 혼합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이미지의 대립 형태로는 불량주거 건물 자체에 대한 해석의 차이, 그리고 프랑스 문화의 전형성과 이주민 문화의 다국적성에 대한 해석의 비중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3) 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향수와 부정적 인식의 공존

도시민들의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 이미지로서 특히 벨빌의 동네 경관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벨빌의 건물상태가 다른 구역들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채 방치되었던 점과도 관련된다. 이 동네의 집들은 시내에서 떨어지고 땅모양이 경사졌다는 이유로 시내 중심가에 비해 개발압력을 상대적으로 늦게 겪기도 했지만, 일찍부터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 집들의 건축 재료가 값이 싸고 질이 낮은 것들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쉽게 마모되고 낡은 티가 더 빨리 나는 집들과 골목 풍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광경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끼치는 것이지만, 그곳을 떠나 밖으로 이주해온 파리의 시민들이나 그와 무관하더라도 물질적 풍요가 적었던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을 살았던 성인들에게 공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경관을 제공한다. 다음과 같은 서술들은 이처럼 특정 계층의 범주를 넘어 도시민 공통의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경관효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관광객들이 찾는 파리”의 화려한 이미지와 대비 시키는 “진짜 파리 사람들의 파리” 즉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동네”의 경관 이미지가 벨빌에서 찾아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벨빌은 파리지앵들의 젊은 시절의 추억과 애환을 가득 담은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벨빌의 옛 모습을 항상 그리워한다. 저녁 여섯 시만 되면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동네 카페의 의자에 앉거나 길거리 에 나와 한담을 나누면서 지냈다. (Maurice Baeli의 증언, 74세)

1950년대 파리 서민동네의 푸근한 정서와 표상을 가득 담은 어린이 영화 〈빨간 풍선〉은 당시 벨빌의 골목길들과 생활을 그대로 보여준다. 벨빌의 거리와 골목길들처럼 파리 주민들의 생활공간 이미지를 대표하는 곳도 많지 않다. 20세기 사진의 대가인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Henri Cartier Bresson)의 사진기에 담긴 베레모에 긴 바게뜨 빵을 끼고 골목길을 나서는 어린이나 시장골목 풍경,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과 계단이 나있는 비탈길 등의 장면 중 상당수

가 벨빌을 무대로 하고 있다. … 파리지앵들이 빵을 굽고 한잔 기울이고 싸우고 울고 웃던 그들 생활의 골목길들로서 말이다. (Angenique의 증언, 36세)

하지만 이런 도시민 공통의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경관이 긍정적인 내용만을 담을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열악했던 주거환경을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경관이기 때문에 긍정적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는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드물지 않다. 현실적 시선과 낭만화된 기억이 같은 사람의 내부에서 공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그때(1930년대) 정상적인 삶을 꾸리기에는 너무나 좁은 공간에서 살았다. 아이들이 잠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식탁 테이블을 창문 밖에 내놓고 그 위에 의자를 올려놓았었다. 남편과 내가 잘 자리는 또 다른 테이블의 아래로 들어가 눕는 것으로 해결했다. … 그때는 주거난이 정말 심각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할 수만 있다면 (딴 동네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정말로 이사 갈 형편이 못되었다. 아이들은 자라나는데, 우리는 충분한 돈이 없었다. 정말로 힘들었다. (Simone의 증언, 78세).

오늘(2000년대)의 벨빌에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은 나지 않는다. 예전의 벨빌은 그렇다. 오늘날 여기는 더 이상 벨빌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 골목길들을 돌아다니면 우리가 살던 어린 시절의 벨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 옛날 이곳 벨빌의 거주 사정이 나빴었는데도 그것이 그렇냐고? 물론 그렇다. 왜냐면 우리는 모두 자신의 어린시절과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때 젊었다. 그리고 당시의 벨빌은 일종의 ‘마을’이었다. (Maurice Baeli의 증언, 74세)

4) 프랑스적 정체성과 외국인들의 이주문화

서민 주거지역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중예술의 공간들이 일찍부터 들어섰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각종 재현물들을 통해서 벨빌

의 거리들은 파리에서 자라난 많은 장년과 노년층 주민들에게 프랑스적 도시 일상경관의 한 전형처럼 인식되는 경향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벨빌의 실제 경관이 오랫동안 ‘프랑스적 도시 일상의 풍경’이란 전형성 안에만 가두어질 수 없다. 왜냐면 벨빌은 파리에서 가장 중요한 외국인 밀집지로 발전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19세기 이후 제3세계에서 제1세계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의 첫 번째 경제활동은 대부분이 비숙련 임금노동이었다. 그들을 받아들여주는 분야는 공업과 공업지대 부근의 단순 서비스업 분야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외국에서 오는 이주 노동자들은 우선 도시 외곽 공장지대에 가까우면서도 값싼 주거지를 찾았다.

파리에서는 벨빌이 일찍부터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결과적으로 벨빌은 20세기 초엽부터 동구권과 남서유럽 각지로부터 온 이주민들이 정착을 하기 쉬운 곳이었다. 그들 이전에 프랑스의 각지에서 파리로 이주했던 프랑스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뒤를 이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가족들이 여기에 진입한 것이다. 20세기 중반 아랍과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다시 베트남과 캄보디아,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인들이 쉽게 동지를 틀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도 벨빌 일대였다.⁶⁾

이런 현상은 “전형적인 파리지역의 추억의 경관”을 담은 동네와 상반되는 벨빌의 이미지를 만든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프랑스어가 아닌 온갖 언어로 표시된 간판들”이 들어서고 국적이 다른 여러 가지 음식과 향료냄새와 음악과 복장들이 거리에 흘러 다니는 “가장 프랑스적이지 않은 혼합된 외래 경관”의 동네라는 인식을 만들어내며, 그에 관련된 기억들이 축적되고 이미지를 재현시킨다.

그렇게 대립, 격돌하는 재현물의 의미들은 동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짓느냐는 차원에서 나아가 동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주민 정체성과 세력간의 갈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특히 벨빌의

6) 필자는 최근 프랑스의 한 인권 활동가로부터 2000년대 들어 중국을 거쳐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까지도 이 벨빌 구역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낡은 주거지들에 대한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시작했던 1960년대 이래 이 지역의 경관에 대한 재현방식과 이미지 부여는 한편으로는 재개발에 대한 저항의 자료로 사용되기도 했고, 거꾸로 문제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최근 사례로서 벨빌 구역의 불량 주거지들에 대한 도시재개발 계획과 그에 대응하는 주민들 및 비정부 사회단체들이 대립의 맥락 속에서 경관에 대한 재현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 및 해석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활용했는지를 살펴볼도록 하자.

4. 도시 재개발과 경관 해석의 싸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벨빌 구역에는 19세기 이래 프랑스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도시 노동자층이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 들어옴으로써 노동자들의 밀집 거주구역이 형성된다. 이때 지어진 가옥들은 오스만의 파리 개조작업을 통해 파괴된 폐건축 자재들을 주워다가 짓는 열악한 형태가 다수를 이룬다. 이런 특징은 시간이 지나 건물이 노후화하고 새로운 주거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약한 지역 주민들 스스로에 의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네의 주거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는 가운데 도시 중심부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보다 안락한 새 주거공간을 찾는 도시 중간층이 성장했다. 이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게 되면서, 그때까지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벨빌 구역을 포함한 파리 외곽지대에 대한 재개발 압력이 커졌다. 그럼에 따라 이전의 열악한 가옥들이 재개발되고 그 자리에 중간계층들이 진입하면서, 그곳에 살던 하층민들은 그보다 더 바깥쪽으로 내몰리기 시작했다. 이에 반항하는 기존 지역주민들 특히 세입자들과 불법 이

민자 등의 외국인들은 도시 재개발 압력에 맞서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프랑스 내 사회운동 세력이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가세하게 된다. 이들의 재개발 저항운동은 벨빌 구역의 역사적 경관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환기시키고 그 가치를 재평가시키는 작업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지역 경관의 가치와 도시의 정체성에 관련된 의미부여 작업을 정치적인 차원에서 활용하는 특징을 낳게 된다.

1) 재개발과 주거지 변화

1870년에 들어선 프랑스 제3공화국은 오스만의 업적을 이어받아 계속 도시개조활동을 벌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스만 시대의 도시개조 작업은 파리 중심부에 집중되었었으며, 이 당시 벨빌 일대는 난개발로 그리 튼튼하지 못한 집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들어섰었다. 이 시기에는 전에 커다란 규모였던 필지들이 잘게 나누어지는 현상이 다수 발생했다.

이후 20세기 들어 기존의 열악한 주거지들 일부가 철거되고 새로운 주거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노동자 계급 일변도였던 곳에 일부 중산층이 들어오면서 벨빌 구역 내부의 계층도 분화되기 시작했다. 20구의 새로운 구청 부근에 특히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그럴듯하게 장식된 새로운 중산층구역들이 탄생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감베타 광장(Place Gambetta) 일대가 거론된다. 한편 1차 세계대전 종전과 2차 대전 발발 사이에는 처음으로 고층의 공공주택들이 이 곳에 들어서게 된다. 기존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임을 공표하며 들어선 이 공공주택들(HBM,⁷⁾ HLM⁸⁾)은 1936년 벨빌 인구의 약 10%를 수용

7) “Habitation à bon marché”(직역하면 “값싼 주택”이란 뜻)의 준말로 1894년부터 파리지 일대의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가 주관이 되어 건설한 공공주택을 가리킨다.

8) “Habits à loyers modérés”(직역하면 “임대료가 낮은 주택”이란 뜻)의 준말로 HLM 제도가 2차대전 직후의 재건과정에서 제도를 변경하여 임대를 전제로 하는 공

하고 있었고, 이후 점차 그 비율을 늘려가게 된다.

고층 콘크리트 건물인 공공주택들의 등장은 벨빌의 경관에 큰 변화를 일으키며 구역의 정체성 이미지에 새로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20구의 전통적인 이미지였던 목가적 분위기 혹은 도시 노동자 구역의 낡고 불규칙적인 가옥들의 배치가 낡는 독특한 분위기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오스만의 도시개조 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일변도로 바뀐 파리의 다른 구역들의 모습과 비슷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 정체성 이미지의 변화에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노동자 계층에서 자신들의 구역을 잃어버린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했다.

사실 이 동네가 좌파 정당들의 본거지였던 만큼, 이 동네의 정치적 성향만은 비교적 오래 지속되었다. 예를 들면 1940년에는 파리 시에 거주하는 공산당원의 약 4분의 1이 20구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9세기부터 벨빌 구역에 썩시몽 주의자들의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었고, 19세기와 20세기 내내 파리썩민을 비롯한 계급적 성격이 강한 사건들과 노동운동들이 반복해서 벨빌을 무대로 전개되었던 전통적 성향이 계속 유지된 셈이다.

그런데 1980년대를 기점으로 마침내 이러한 경향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가장 중요한 계기는 역시 도시 재개발을 통한 주거형태의 변화와 이를 추진하는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였다. 주거지의 변화가 곧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계층적 문화적 성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것은 전에 거주하던 동일한 주민의 계층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 거주민이 다른 곳으로 나가고 새로운 계층 구성원이 이곳에 들어온다는 말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개발과 공간의 중산층화(embourgeoisement)⁹⁾ 및 철거작업을 겪고 있는 이곳은 부분적으로는 18세기 이전 목가적인 환경 속에서 이

공임대주택을 국가가 주관하여 대량으로 건설하고 관리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
9) 영어로는 'gentrification'으로 번역 가능하다.

곳이 상류층의 별장지대였던 전통과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기도 한다.

2) 건물 형태와 경관의 의미에 대한 싸움

주거의 모습과 도시경관은 각 시대마다 그리고 각 계층과 집단마다 자기집단의 기억을 투영하며 그에 대한 이미지는 자기 정체성과 연결된 자원으로 활용된다. 그것은 현재의 이익을 대변하는 싸움의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미 과거의 것으로 지나간 이미지에 대한 소비가 다시 현재의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자원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벨빌 구역에 들어서는 새로운 주거 특히 고층에 획일적인 콘크리트 구조로 들어서는 공동주거들은 도시경관과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며, 많은 이전 거주민들의 반발을 샀다(Quartier Libres 1989. 9. 14). 한편에서는 도시의 과거에 대한 낭만적 노스텔지어와 회상에 젖은 시선에 기대어 예전의 불규칙하고 좁은 골목길들도 낭만의 경관으로 해석되기도 한다(Lépidis 1975: 18). 이런 해석의 연장선상에서는 대형 공동주택¹⁰⁾ 건물들이 역사 환경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물신주의적 건축 환경으로 비판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량주거지들 자체도 실은 이전 시대의 푸근한 목가적 경관이 파괴되고 들어선 난개발의 산물이기도하다. 이후에 저소득층의 지대에 지어진 이 불량가옥들은 150년 전부터 노동자층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해온 곳이다. 비좁고 채광과 통풍상태가 나쁜 주거지들은 단순히 주거환경의 열악함 뿐 아니라 이미지 상으로 각종 질병과 사회악의 근원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사실 기존 주민들이 주거환경 변화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하

10)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주택형태상의 분류를 한 명칭이고 공공주택은 주택의 소유와 관리형태에 대한 명칭으로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만 문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과 관련되는 대목이다. 그들에게 당장 절실한 것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였다. 그리고 가능하면 개선된 주거공간의 확보다. 이들이 철거와 그에 따른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주거환경의 개선에 반대하는 것이기보다는 그로 인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안에 있는 주거지가 도시구역에서 사라지고, 자신들은 외곽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대한 반발이다.

이들의 재개발 반대운동은 노동자 문화와 1950년대 이전 파리 옛 도시구역의 경관이 갖는 노스탤지어의 기억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다른 동네의 주민들, 그리고 혹은 도시 역사성의 유지, 보존을 주장하는 일반 인들과 연대하여 특히 대형 고층건물로 대체되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큰 규모의 운동으로 발전한다. 이들과 대립하는 주체는 물론 자신들의 소유지 가격이 상승하기를 희망하는 땅주인과 개발업자, 일부 도시정부의 시각 등 재개발을 찬성하는 측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도시미관의 정비”이자 “토지로부터 오는 경제적 이익의 증대”다.

이러한 제반 움직임들 속에서 직접 경제 혹은 정치적 경쟁과 싸움에 참여하는 것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처럼 비쳐지는 도시구역의 기억에 대한 다양한 재현과 역사성의 기록, 보존, 재창조의 문화예술 활동들이 동원된다. 즉 이런 재현의 전략들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문화적 수단을 구성하게 된다.

3) 벨빌 공원(Parc de Belleville)과 벨빌 남부(Bas-Belleville) 재개발 저항운동

벨빌 구역의 역사성에 대한 기억의 재현을 동원한 중요 사례 중 하나는 1983년에 불량가옥지구들을 상당수 헐어낸 뒤 그 자리에 들어선 벨빌 공원(Parc de Belleville)일 것이다. 1977년의 재개발 계획안에 의

하면 이곳에는 프랑스의 대형 마트 체인인 카지노(Casino)의 매장과 주차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그들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주민들은 우선 3일간 일대 가게들의 문을 닫고 파업을 벌였으며, 지역주민 조합과 사회단체들의 주관 하에 동네경관에 대한 사진과 그림 전시회를 위시한 파업기간 동안의 축제가 벌어졌다.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은 이를 자세히 보도했고, 그 반향은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보내던 좌파성향의 시민들 뿐 아니라 어린 시절의 파리 이미지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광범한 시민층의 지지로 이어졌다.¹¹⁾ 이전에는 서로 대립하던 벨빌의 경관 해석경향들도 대형 할인마트와 주차 빌딩들의 입점에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로 연합하기 시작했다. 카바레와 극장들이 많았으며 수많은 영화와 노래의 무대로 등장했던 이곳의 정취 보존을 옹호하는 프랑스 대중예술계 인사들, 외국출신 이주민의 거주권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단체들의 가세, 그리고 노동자구역의 전통과 대자본의 진입을 반대하는 좌파운동 단체들이 일제히 자신들이 해석하는 이미지와 경관에 대한 재현들을 동원해서 새로운 경관파괴와 할인마트 빌딩군의 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역 도서관 열람실에서는 이 일대를 무대로 하는 문학작품 낭송회가 열렸고, 골목길에서는 이곳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의 상영회가 열렸다. 적지 않은 외부지역 시민들도 그 행사에 참여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저항과 지역이미지 재현의 정치는 ‘문화 수도’ 이미지에 부심하는 파리 시청의 개입을 불러들이기에 이르렀다. 결국 파리 시청은 카지노 그룹으로부터 필지들을 다시 사들인 다음 공청회와 주민참여회의들을 열어 이곳을 어떤 형태로 재개발할 것인지를 토론(Esthèbe 2004, Lojkine 1995)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에 의해 결성된 임시 대표회의와 이들을 돕는 문화활동가 네트워크는 유명 건축가들을 비

11)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보도들 중 Le Figaro(1983. 10. 3.), Le Monde(1983. 10. 4), Libération(1983. 11. 7) 등을 참고할 것.

롯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동원하여 벨빌 중심부의 경관에 대한 대안적 경관설계안을 제시했다. 다시 여러 차례의 주민 공청회와 협의들을 거쳐 결국 열악한 밀집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현재 벨빌 구역의 중심을 차지하는 벨빌 공원이다.

1988년에 완공되어 문을 연 벨빌 공원은 여러 곳에 벨빌 구역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담은 상징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 공원의 북동쪽 끝 입구 부분은 파리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속하는 곳으로서 눈 아래 파리 시내를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전망을 가진 공원 입구에는 19세기 초반까지 이 일대에 포도농장들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일깨우는 포도나무들이 심겨져 있다.

그러나 이전의 경관과 기존 주민들의 사정 및 문화를 무시하는 대규모 재개발 작업이 1988년의 벨빌 공원 완공으로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붕괴위기에까지 이른 불량주거지에 대한 대대적인 재개발 작업은 1989년에 들어 다시 시작되었다(Le Monde 1989. 9. 24). 파리 시정부는 기존의 열악한 벨빌 주거상황을 개선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현대식 주거지들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파리시청은 사실 1957년에 이미 제 7단위구역부터 시작해서 건물과 토지를 수용했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재개발을 하기 위한 재정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 건물의 주민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30여 년을 방치했고, 그러는 사이 그곳의 일부에는 외국인 불법이민자 등 불법 거주자들이 빈 집에서 건물붕괴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이르자 1989년에 파리 시청을 경찰을 동원해서 이 건물들에 대한 강제철거에 들어갔고, 그 위에 고층 아파트들을 빼곡히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그러자 이에 저항하는 외국인 불법 주거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주민운동이 다시 불붙으면서 사회적인 반

향이 커지기 시작한다. 당시 프랑스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Quartiers libres 1989. 10; Le Figaro 1989. 9. 28) 이 사건들의 한편에서는 “비인간적인 철거작업”이라는 여론과 함께 “전형적인 파리 중간층 혹은 중하층 서민들의 추억의 공간’에 대한 파괴와 재개발을 반대하는 또 다른 성격의 여론들이 급물살을 타고 발전(Estèbe 2004: 116)하게 된다. 이 무렵, 이전의 벨빌 공간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과거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독자들의 경향과 맞물려 벨빌 구역에 대한 문학작품과 미술작품, 사진집, 수필집, 기타 각종 미디어와 역사성의 경관 재구성을 위한 작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여기서 특히 다양한 지역 문화시설에서 활동하는 ‘문화활동가’(animateurs)들의 역할¹²⁾은 단순한 주민의식 교육을 넘어 도시의 거리 위에서 펼쳐지는 축제 등의 이벤트들과 공동벽화 그리기, 낙서와 포스터 작업, 기타 건물의 구조적 뼈대위에 새로 덧칠할 수 있는 모든 문화적 이미지들의 표현양식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Grimaldos 1998; Poyraz 2003). 또한 이민 2세대들 스스로가 지역 내 ‘문화활동가’로 참여하면서 공간행동에 참여하는 일상적 도시경관 바꾸기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활동 단체로는 1989년에 결성된 주민협동조합인 ‘라 벨빌뤼즈’(La Bellevilleuse)¹³⁾와 2002년에 결성된 지역 문화활동 지원 조합인 ‘벨빌 싸스비지뜨’(Belleville, ça se visite)¹⁴⁾ 등을 들 수 있다.

12) 프랑스 도시 내 주민밀착형 문화활동가들의 활동내용과 관련된 참고자료로 Estèbe의 저작(2004)을 볼 것.

13) “벨빌 사람”의 여성형으로, “벨빌 사람”(le bellevilleur)이란 단어와 조합을 가리키는 단어인 association이(이 단어는 프랑스어로 여성형으로 쓰인다) 결합되어 만들어진 조어.

14) “벨빌, 우리 동네를 방문 한다”는 뜻의 문구가 지역문화활동 지원 조합의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이 조합은 2002년에 파리 시청의 지원을 받아 벨빌 출신 15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구역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그리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동네의 역사성과 전통, 문화적 가치에 대한 공지를 높이는 자기 동네 재발전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05년에 시청의 지원이 끊기면서 한 때 문을 닫았던 이 조합은 각 곳으로부터의 요구에 부응하여 2005년 후반에 다시 자발적인 민간조직으로 재출발했다. 현재 벨빌 구역의 일상경관과 역사성, 주민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La Bellevilleuse’는 1989년 재개발 사업으로 벨빌 남쪽의 4개 대형필지에 대한 강제철거가 시행될 무렵 지역주민들에 의해 결성된 조합으로서 그 활동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 사회운동 단체출신의 운동기들이 조합에 외부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효과적인 활동과 네트워크 관리에 힘을 보탤다.¹⁵⁾ 외부 정치조직들과 건축가 및 법률가와 역사학자를 포함한 자원 봉사자들, 그리고 직접 이익을 대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에 있어 ‘La Bellevilleuse’ 조합은 점차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1950년대부터 생산되어온 벨빌 구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경관재현 이미지들이 적극적으로 동원됐다.

특별히 해당 도시구역 각 곳에 자리 잡은 동네 도서관과 종교시설, 문화활동 지원기구들은 이 구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 요소들을 자신들의 활동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Télérama 1994. 5. 11). 그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는 벨빌 구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명한 만화가인 네모(Nemo)가 앙리 세브로 거리의 작은 개인주택 상단부를 자신의 그림으로 장식한 것이다. 그의 그림에 그려진 고양이 두 마리와 빨간 풍선은 1950년대에 이 동네의 골목들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던 어린이 영화 ‘빨간 풍선’(Le Ballon Rouge)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으로서, 현재 어른이 된 프랑스인들의 어린 시절에 깊이 각인된 과거의 추억을 재현시키는 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또한 아프리카와 아랍, 기타 외국 출신의 벨빌 이주민들 또한 자신들의 전통음악과 의상, 음식을 소개하는 바자회로 거리를 수놓는가하면 프랑스계 주민들과 함께 벽화를 그림으로써 자신들의 문화가 벨빌 지역 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성요소가 됨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것은

지역 개발권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이 조합의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정보는 La Bellevilleuse 조합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다.

15) La Bellevilleuse 조합에서 2006년까지 발행해 온 격월간 잡지 Quartiers Libres와 이들이 2006년까지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 www.labellevilleuse.fr를 참조.

최근 파리 교외지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새롭게 부각된 요소로서(Poyraz 2003; Conseil de l'Europe 2000),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출신 이민 2세들이 프랑스 도시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역 내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내리기, 문화적 정체성과 자존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조화시키기를 통해 전개하는 과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La Bellevilleuse’를 전면에 내세운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저항과 경관까지 재평가 노력, 그리고 대안적 개발안 발전 노력은 결국 7년 동안 싸움을 끈 뒤 1996년 극적인 해결을 낳는다. 1996년 10월 당시 파리 시장이던 장 티베리(Jean Tiberi)는 주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벨빌 구역의 이전 주거지를 완전히 허물고 대형 아파트들과 쇼핑몰을 세우는 방식의 재개발이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파리 시의 역사경관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데 동의하게 된다(Le Figaro 1998. 4. 7).

이후 다시 18개월에 걸친 주민-시정부간 협의를 거쳐 전면 수정된 재개발 안에서는 기존 노후화된 건물의 80퍼센트를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편, 벨빌 구역 안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통과되었다. 리모델링되는 건물과 신축되는 건물들은 기존의 오래된 건물들과 경관이 충돌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규모와 외형으로 디자인되는 한편 주거 건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공주거, 그중에서도 사회보장형 공공주거인 임대아파트(OPAC)¹⁶⁾와 조합아파트(OPAH)¹⁷⁾를 우선적으로 짓게 된다.

16) OPAC은 “Office Public d'Aménagement et de Construction”의 준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공공건설과 배치 공사”라고 할 수 있다. OPAC 건물은 임대전용 아파트로서 지방정부가 직접 건설하고 관리하는 건물이다.

17) OPAH은 “Opération programmée d'amélioration de l'habitat”의 준말로 번역하면 “주거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이 된다. OPAH를 통해 건설된 건물들은 대개 각 개인 조합원을 모집해서 만들어진 조합 아파트로서 여기에 지방정부 등의 공공기구가 설계와 지역 내 경관 및 시설과의 조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이 건물들에 대한 건축설계는 시정부와 주민조합이 공동으로 협의해 위임하는 특임 건축가들이 맡게 되며, 설계 작업과 공사과정은 모두 시정부-주민조합의 공동협의를 통해 조정되면서 서서히 이루어진다.¹⁸⁾ 특히 역사성을 살리면서 기존 주거지들의 경관 중 일부에 대해서 가치를 새로이 부여하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재개발과정에 적용된 것은 도시 재개발 사례에 있어 새로운 전범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원래 재개발 프로그램에서는 동네에 있던 산업, 공업 아플리에들을 모두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수공업 아플리에 건물 일부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그렇게 존속되는 공업 아플리에 건물들은 이후 주로 미술가들의 작업실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5. 새로운 국면: 경관에 대한 재해석의 역동성

1990년대 말의 일방적 재개발에 대한 저항운동이 ‘라 벨빌뢰즈’가 주도한 벨빌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형태로 마무리된 뒤 이곳의 지역이미지 재현 정치는 새로운 소강상태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라 벨빌뢰즈’는 아직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지만 2005년 이래 이 조합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재개발 투쟁’에서 승리한 후, 더 이상 크게 할 일이 없어진 ‘라 벨빌뢰즈’의 사무원은 2005년 여름부터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오후 세 시간동안만 이곳에 들러 우편물들을 점검하고 몇 안 되는 상담을 한 뒤 돌아가고 있었다.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벨빌 일대에 퍼져있는 중소규모의 공장 과 작업장들이 문을 닫은 지는 오래되었다.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주거도 옮겨가게 되어 벨빌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집합 주거지역이 아니다. 두어 개 신발 수선가게만이 2차대전

18) 벨빌 구역 남측 일대 불량주거들에 대한 리모델링과 건축공사는 1999년에 시작되어 2006년에 일차적인 완성을 보았으나 아직도 일부는 2007년 5월 현재 공사 중에 있다.

시대의 잊혀진 유물처럼 덩그러니 간판을 걸어놓고 있다. 길목 곳곳에 남아있는 과거 수공업 시절의 작업장 건물들은 주로 젊은 미술가들의 아틀리에로 사용되고 있다. 시청에서 대규모 재개발 계획을 철회한 뒤 이 지역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가들의 아틀리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장려한 결과이기도 하다.¹⁹⁾

예술가들은 동네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교실을 운영하기도 한다.²⁰⁾ 거기에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 뿐 아니라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이후 새로 벨빌로 이주해 들어오는 신흥 중산층의 자녀들이 주요한 고객의 하나를 이루기 시작했다. 새로 지어진 조합 아파트와 임대전용 아파트들은 주변에 들어선 벨빌 공원과 예술가들의 아틀리에로 환경이 쾌적해지고 지역의 문화활동이 발전하는 결과 오히려 집값과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에는 저소득층이나 육체노동자들을 대체하는 신흥 중산층들이 진입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벨빌 대로에서 가까운 옛날 공장이 차지했던 큰 필지의 건물들 중 일부에는 2000년대 들어 부유층들이 리모델링 작업을 한 뒤 새로 이사해 들어와 살고 있다. 그 집들이 면한 바로 바깥 거리에는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랍계 이주민들이 북적거리는 시장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길 안쪽의 고급주거지와 바깥의 거리는 서로 아무런 소통도 없다. 통로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서면 바깥의 소음이 멈추고 고요함 속에 새소리만 지저귀다. 아직 넓은 필지가 남아있고 도심에서 가까운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이 일대에 새로운 부유층과 보보스(Bobos)의 주거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구청 직원의 전언에 수긍이 간다.

1990년대의 재개발을 둘러싼 싸움이 끝나고 난 뒤, 벨빌은 다시 새

19) 2000년대에 들어 벨빌 남부구역은 미술 아틀리에 지대로 변하고 있다. 벨빌 싸스버지프 조합의 안내자 양제니끄의 설명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벨빌과 메닐몽탕 일대에 이런 작은 미술 아틀리에나 카페 겸 출판사가 무려 20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20) 미술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미술행사, 시낭송회, 코미디 오페라, 음악행사 등이 이후 벨빌의 각 곳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된다(Le Monde 1996. 5. 10, Le Monde 1998. 1. 25, Nouvel observateur 2000. 6. 22).

로운 인구에 의한 새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 관찰된 벨빌에서는 이제 귀족의 별장이나 노동자들의 집단 주거지 같은 이전의 계급적 통일성이나 어느 특정 종족 혹은 민족에 의한 경관문화의 대표성이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벨빌의 경관에 대한 재현을 통해 도시 주민생활의 어린시절 추억을 공유했던 세대도 이제 사라지고 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경관은 각기 다른 국적성과 다른 계층성, 다른 종족성과 직업성들이 특별한 원칙 없이 혼합된 동시에 분열되어가는 양상이다. 그들이 기억을 공유하고 상징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재료는 많지 않아 보인다.

벨빌 지역의 경관에 있어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경사진 벨빌거리(rue de Belleville)의 남쪽 끝 사면 일대에서 벨빌대로(Bd. de Belleville)까지 이르는 200여 미터의 거리를 프랑스어가 아닌 중국어 간판이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기존 프랑스 가게들의 차분해 보이는 외양과는 달리 중국 상점들은 각종 네온싸인을 번쩍이면서 벨빌의 과거 이미지와 단절되는 생경스런 광경과 소리와 냄새들을 쏟아놓는다. 벨빌에서 일하는 조합 활동가들과 카페 점원들, 서점 주인 등의 얘기에 따르면 이들 중국인들은 중국의 온주와 차주출신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이전까지 벨빌에 이민 왔던 아랍계나 아프리카 출신 주민들과는 달리 프랑스 문화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으며,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없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한다. 그들에 관해서는 심지어 마피아 조직을 통해 인신매매의 과정을 거쳐 좁은 봉제 작업장에 갇힌 채 강제노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보도들(Libération 1997. 8. 9; Nouvel Observateur 1997. 1. 30)이 나오고 있다.

각 집단들의 문화영토로 파편화되어가는 2000년대 중반 벨빌의 경관과 그에 대한 해석들은 새로운 시대에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또 다른 역동성의 표상이다. 이런 다양함 속에서 ‘소통’과 ‘공유’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부유하고 끊임없이 이주해가는 새로운 공간

적 생활양식을 보이는 현대에 이르러 벨빌의 주민 ‘정체성’이란 것은 어떤 경관 이미지를 공통의 자산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다시 새로운 시공간적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과제다.

참고문헌

Augé, Marc

1994 *Pour une anthropologie des mondes contemporains*, Paris: Aubier.

Beaumont-Mailletm Laure(et als.)

1985, *Paris: de la préhistoire à nos jours*, Paris: Ed. Bordessoules.

Bonnefoy Laetitia

2000 *Itinéraires d'histoire et d'architecture — le 20e arrondissement*, Paris: AAVP.

Bourdieu, Pierre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dych, Danielle (et al.)

1999 *Atlas de Paris: évolution d'un paysage urbain*, Paris: Parisgramme.

Conseil de l'Europe

2000 *Participation politique et sociale des immigrés à travers de collectif*, Bruxelles: Conseil de l'Europe.

De Certeau, Michel

1990 *L'invention du quotidien - tome 1. arts de faire*, Paris: Gallimard.

El-Gammal, Jean

- 1998 *Les hauts quartiers de l'Est parisien — d'un siècle à l'autre*, Paris: Publisud.
- Estèbe, Philippe
 2004 *L'Usage des quartiers - action publique et géographie dans la politique de la ville (1982-1999)*, Paris: L'Harmattan.
- Fayt, Therry
 2003 *Les villages de Paris — Belleville, Charonne, Auteuil et Passy: Mythes et réalités d'un espace communautaire*, Paris: L'Harmattan,.
- Grimaldos G., Andrade
 1998 *Le pluralisme spontané des habitants de Belleville et de la Goutte d'Or (Paris)*, Paris: Presses Univ. du Septentrion.
- Guerard, Henri
 2000 *Le regard d'un photographe sur Belleville, Ménilmontant, Charonne: 1944-1999*, Paris: Ed. de l'Amandier.
- Jacquemet, Gérard
 1995 *Belleville au 19e siècle - du faubourg à la ville*, Paris: Ed. EHESS.
- Khellil, Mohand
 1991 *L'Intégration des Maghrébins en Franc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King, Anthony
 1991 *Urbanism, Colonialism, and the World-Economy: cultural and spatial foundations of the World Urban System*, London: Routledge.
- Lee, Anthony W.
 2001 *Picturing Chinatown — Art and Orientalism in San Francisco*, Berkeley: Univ. of CA Press.
- Le Figaro* 1983. 10. 3일자.
 1989. 9. 28일자.

1998. 4. 7일자.

Le Monde 1983. 10. 4일자.

1989. 9. 24일자.

1996. 5. 10일자.

1998. 1. 25일자.

Lépidis, Clément

1975 *Belleville*, Paris: Henri Veyrier.

1980 *Belleville au coeur*, Paris: Verment.

1997 *Je me souviens du 20e arrondissement*, Paris: Parigramme.

Libération 1983. 11. 7일자.

1997. 8. 9일자.

Lidgi, Sylvie

2001 *Paris — gouvernance ou les malices des politiques urbaines*,
Paris: L'Harmattan.

Lojkine, Jean

1995 *La politique urbaine dans la région parisienne 1945-1971*,
Paris: EHESS.

Manéglier, Hervé

1995 *Vie et histoire du XXe arrondissement: Belleville, Charonne,
Père Lachaise, St-Fargeau*, Paris: Editions Hervas.

Masclat, Olivier

2003 *La gauche et les cités - Enquête sur un rendez-vous manqué*,
Paris: La dispute.

Meusy, Jean-Jacques(dir.)

2001 *La Bellevilloise, 1877-1939: une histoire de la coopération et
du mouvement ouvrier français*, Paris: Editions Créphis.

Morier, Françoise

1994 *Belleville, Belleville - visages d'une planète*, Paris: Créphis
Editions.

Musée Carnavalet

- 1977 *De Belleville à Charonne: promenade historique à travers le XXe arrondissement*, Paris: Musée Carnavalet.
- Nouvel Observateur* 1997. 1. 30일자.
2000. 6. 22일자.
- Perec, Georges
1992 *En remontant la rue Vilin*, Paris: Plon.
- Poyraz, Mustafa
2003 *Espaces de proximité et animation socioculturelle — politiques des animateurs de quartier au croisement de multiples enjeux politiques et sociaux*, Paris: L'Harmattan.
- Quartier Libres* 1989. 9. 14일자.
- Sarn, Amélie
2004 *Les Triplettes de Belleville*, Toulouse: Editions Milan.
- Taïb, Eric
1998 *Immigrés l'effet générations — rejet, assimilation, intégration d'hier*, Paris: Point d'appui.
- Télérama* 1994. 5. 11일자.
- www.labellevilleuse.fr
- Zukin, Sharon
1991 *Landscape of Power: from Detroit to Disney World*, Berkeley: Univ. of CA Press.
- Zukin, Sharon
1995 *The Cultures of Cities*, N.Y.: Blackwell.

<key concepts>: cultural landscape, representation, space, politics, Belleville, Paris

Spatial Practice and Representation in Everyday Politics of Urban Cultural Landscape: A Case Study of Paris' Belleville District

Song, Doyou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gnification of urban vernacular landscape in the context of everyday life and the making of memories on urban places. Places of Belleville district of 20^e arrondissement in Paris had very important symbolic value as major places of memory for the French Revolution's Paris 'Commune' rebellion. After that, this district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headquarters for French socialist movements.

On the other hand, urban community life's heritage, and imagined memories about their myth, played important role for the making of Belleville district's collective history. Bakeries, shoe-makers, cafeterias, wine drinking houses, and narrow streets made ensemble of urban village's atmosphere. As time passed, those elements of everyday landscape became more meaningful resources in the period of drastic urban redevelopment project since 1980s. Confrontations among divers interest groups with their own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Hanyang University

economic concern needed every possible mobilization of contributable resources. And the image — and the memories intertwined with it — of the district has been differentiated by each generation and each ethnic group.

With the immigration from African and Asian countries, cultural integration of this district's residents became more difficult subject than before. In comparison, before 1970s, socialist culture and laborer's movement tradition had stayed in the limit of French national urban culture, and they could proclaim their legitimacy as a typical 'French' and 'urban', 'parisien' everyday landscape of their own. Now, African and Asian residents in Belleville district participate also in this rivalry of cultural legitimacy and identity game with their residential life style and with their vestiment practice, conversation pattern, and the whole of vernacular landscape composition.